

# 조용해서 더 좋은 New Zealand 더니든·카이코우라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뉴질랜드는 한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다.  
특히 최근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간 덜 알려졌던 뉴질랜드 여행지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남섬의 더니든과 카이코우라는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와 멋진 풍경, 맛난 해산물 요리까지,  
그 어느 유명 여행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글 성연재 기자



# 더니든 Dunedin

뉴질랜드 남섬을 대표하는 도시 더니든(Dunedin)은 독특한 풍경과 흥미로운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룬 곳이다. 도심 길목 곳곳에는 에드워드 시대와 빅토리아 시대의 문화유산이 가득하다. 웅장한 건축 유산 사이로 아름다운 언덕과 항만, 울퉁불퉁한 해안선의 독특한 풍경들이 어우러진 장면은 감탄사를 불러일으킨다. 시그널 힐 전망대(Signal Hill Lookout) 언덕에 오르면 더니든 도심과 바다의 파노라마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 가슴 탁 트이는 풍경과 다양한 액티비티

더니든은 산악자전거 같은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도시다. 독특한 매력을 가진 수많은 온·오프로드 루트가 있다. 웨스트하버(West Harbour)와 오타고 반도(Otago Peninsula)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짧은 길이의 오프로드 자전거 트레일이 있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자전거 도로도 있다. 특히 오타고 반도는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세계 10대 자전거 여행지'로 두 차례나 올랐다. 세계적 수준의 다운힐(내리막) 산악자전거 트랙을 경험하고 싶다면 시그널 힐(Signal Hill)을 추천한다. 또 멋진 장거리 투어를 원한다면 스웘피 서밋 서킷(Swampy Summit Circuit)을 추천한다.

오타고 반도는 생태 관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곳이다. 깎아지른 해안 절벽 사이에 서식하는 펭귄, 앨버트로스, 물개와 같은 희귀한 야생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구와 구릉형 언덕, 때 묻지 않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룬다. 더니든 도심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한적한 백사장을 낀 해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심에서 남쪽으로 2km 거리의 터널 비치와 워크웨이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장대한 사암 아치들과 해안 절벽, 그리고 곳이 이어진 이곳은 사람들로 붐비지도 않아 비대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더니든의 매력... 양조 맥주 투어**

더니든에는 선술집에서 편안하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준비하다. 또 양조장 투어도 활발해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꼭 방문할 만하다. 애머슨스 수제 맥주 양조장(Emerson's Craft Brewery)이나 유서 깊은 스페이츠 맥주 양조장(Speights Brewery)에서 투어와 시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



[DUNEDIN NZ (더니든관광청) 제공]



[EMERSON'S BREWERY (애머슨스 양조장) 제공]



[DUNEDIN NZ (더니든관광청) 제공]



# Kaikoura

## 카이코우라

뉴질랜드 남섬의 카이코우라(Kaikoura)는 남섬에서 가장 높은 산들과 아름다운 해안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물개와 돌고래, 고래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뉴질랜드 최고의 생태 관광 체험 장소로 알려졌다. 히쿠랑기(Hikurangi) 해구의 영양분이 풍부한 해류 덕분에 이곳에는 풍부한 해양 생물, 야생 동물과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느긋하고 신나는 액티비티들과 풍부한 마오리 역사도 접할 수 있다.

[DESTINATION KAIKOURA (카이코우라관광청) 제공]

1 카이코우라 반도와 산 2 해양 동물 체험 카약 3 돌고래 체험

4 날개를 펼치는 엘버트로스 5 카이코우라 사이클링 트랙

2

[DESTINATION KAIKOURA (카이코우라관광청) 제공]

3

[DESTINATION KAIKOURA (카이코우라관광청) 제공]

[DESTINATION KAIKOURA (카이코우라관광청) 제공]

4

[DESTINATION KAIKOURA (카이코우라관광청) 제공]

5





[DESTINATION KAIKOURA (카이코우라관광청) 제공]



1 카이코우라 사이클링 트랙  
2 카이코우라 향유고래의 점프

## 카이코우라의 액티비티들

카이코우라에서는 세계 어디서도 경험하기 힘든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고래 관광 크루즈를 통해 길이 20m, 무게 최고 50t의 향유고래를 일 년 내내 만나볼 수 있다. 또 수백 마리의 더스키돌고래가 놀고 있는 장관을 지켜보거나 함께 수영도 가능한 투어가 운영된다. 친환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이코우라 물개 카약 투어는 물개 관찰에 최고의 방법이다.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물개와 함께 수영을 즐길 수도 있다. 이곳은 조류 관찰에 최적지이기도 하다. ‘앨버트로스 인카운터스 크루즈’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앨버트로스, 숨새, 가마우지, 제비갈매기 등의 바닷새들을 지켜볼 수 있다.

육지에서는 카이코우라 코스트 트랙(Kaikoura Coast Track)을 따라 하이킹과 사이클링을 할 수 있다. 카이코우라산맥과 태평양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면서 카이코우라 지역을 탐험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카이코우라 페닌슐라 산책로(Kaikoura Peninsula Walkway)는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반도를 감싼 절벽을 횡단하거나 일부 짧은 구간만 걸을 수도 있다. 산책로마다 지역의 역사, 지질학, 야생 동식물 관련 정보도 잘 설명돼 있어 가족이 함께 비대면 여행을 경험하기에도 좋다.







## 빼놓을 수 없는 카이코우라 해산물 요리

카이코우라라는 지명의 뜻을 보면 이곳이 얼마나 해산물이 풍부한 곳인지 알 수 있다. 마오리어로 카이(Kai)는 음식을, 코우라(Koura)는 가재를 뜻한다. 그만큼 이곳은 해산물이 풍부하다. 바닷가재는 당연히 맛봐야 할 음식이다. 해안가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며 바닷가재를 굽다 보면 버터·마늘 향에 군침이 절로 돈다. 가재 샌드위치, 가재 차우더 수프, 가재 바비큐 등 가재로 만들어진 다양한 음식들도 여행자들을 사로잡는다. ⑦

- 1 바닷가재 요리와 민물 가재 요리
- 2 하푸쿠 로지의 아웃도어 밀 다이닝
- 3 1885년 문을 연 더 피어 레스토랑은 지역 어부들이 잡은 카이코우라의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제공한다

